

16. 이삭의 아내(24:1-67)

중요내용

1. 아람을 떠나 가나안에 체류하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묘사 - 주저없이 순종하는 리브가: “여자 아브라함”
2. 리브가를 찾는 일이 용이했다는 것과, 종의 바람에 어떤 심각한 장애도 없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섭리임이 증명.
3. 하나님의 섭리에 상응하는 인간의 반응: 충성된 종, 열의를 가진 라반, 공손하고 자주적 성품의 리브가.
4. 아브라함, 야곱과는 달리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음: 리브가가 이삭을 대신하여 고향을 떠나 외지인이 됨.
5. 족장의 아내들이 가나안 바깥에서 왔다는 것은 족장의 외지인 신분을 떠올리게 함.
6. 지역 내에서 혼인한 이스마엘과 에서와, 이삭과 야곱의 비교.
7. 이삭과 야곱은 가문 경계 내에서 혼인해야 하지만, 땅 바깥에서 찾아야 함(가문과 땅의 경계).
8. 가나안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

1) 아브라함이 종에게 위임하다(24:1-9)

-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 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 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 24:1/ ‘나이가 많아 늙었고’: 노년의 여호수아와 다윗을 묘사하는데 쓰인 말-죽음의 임박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 하나님이 주신 복과 연로한 나이로 인하여 유산을 물려줄 후손을 위한 이삭의 아내를 확보할 필요.
 * 나이와 부는 복을 받은 삶의 표징(욥 42:12).
- 24:2/ ‘종에게 이르되... 허벅지 밑에 손을 놓으라’
 * 종은 집안 전체의 선임 관리자(자켄).
 *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가나안에 매장해 달라고 청할 때에도 같은 의식이 나눔.
- 24:3-4/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모세의 법은 언약 국가 외부의 집단과 상호 혼인을 금지.
- 24:5/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분명히 해둘 것을 요구.
 - 이삭이 직접 가서 협상하면 성공이 보장될 것을 염두에 둬.
- 24:6-8/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자신을 보라”. 반대하는 경고를 강조.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체류한 것을 떠올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천사가 길을 인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종을 위로.
 ‘만일... 하지 아니하면’: 여인이 꺼릴 경우 종은 여인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지니라’: 유일하게 남은 엄격한 의무.
- 24:9/ ‘그 종이... 맹세하였더라’: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임무와 요구를 수행할 것을 맹세.

2) 종이 리브가를 얻다(24:10-61)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 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 24:10-11/ ‘낙타 열 필, 모든 좋은 것’: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뛰어남.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무림(바라크)과 축복(바라크)의 언어 유희. 모든 축복이 준비된 상태.
 ‘저녁 때라’: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타나는 시간-임무를 위한 종의 선택.
- 24:12-14/ ‘이르되’: 공식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 일반 대화를 의미-아브라함과 같이 비제의적, 사적 기도.
 ‘은혜(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헤세드’의 반복으로 주인(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의 성격이 명확해짐.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단임을 밝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정하신 자라’:
 * 주님이 선택한 여인을 착오없이 식별하는 것이 종의 기도의 내용.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 이삭의 여자가 환대로 존경 받는 성품을 증명하기를 구함.
 * 손님을 환대한 ‘여성 아브라함’으로 묘사함으로 리브가의 미덕은 아브라함의 미덕에 대응.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 24:15/ ‘보라(개역개정에는 생략), 나오니’: * 종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리브가가 등장.
 * 하나님의 의자와 인간의 행동이 융합하여 섭리의 목적을 성취.
 ‘리브가...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 아브라함이 세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충족.
- 24:16/ ‘심히 아리따고’: 히브리 내러티브에서 흔치 않은 외모에 대한 묘사.
 ‘처녀더라’: 신부로서 리브가가 가진 매력을 강화-약속의 본질이 이삭의 미래 계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
 ‘그(알마)가 우물로 가서’: 알마는 잉태할 수 있는 상태인 여인을 암시.
- 24:17-18/ ‘종이... 달려가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 리브가도 달렸고(20, 28절) 라반도 달림(29절).
 ‘조금 마시게 하라’, ‘주여 마시소서’,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손에 내려’-물을 먹였음을 암시.
 *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행실을 리브가를 또 하나의 아브라함으로 묘사.
- 24:19-21/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마실 물만 청한 종에게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모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함.
 ‘묵묵히 주목하여’:
 *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인지를 살핌.
 * 믿음에서 우리나라오는 흥분으로 내적으로는 뭘 것 같았으나 겉으로는 감격을 억누르고 있음.
 * 좋은 기대에 찾지만 주재념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앞지르지 않았음.
 ‘평탄한 길을 주신’: 성공적인 여행이 되도록 만드심. 종의 설명 가운데 두 번 언급(40, 42절).

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나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쥘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 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 24:22-25/ ‘코걸이’: * 부와 아름다움의 징표(잠 11:22; 사 3:21). 여인의 코는 그 우아함으로 가치가 인정됨(아 7:4).
 * 예상 밖의 과도한 선물로 인해 라반이 들뜨게 되고 그 집안이 재물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됨.
 ‘누구의 딸이나’ “유숙할 곳이 있느냐”: 종은 아직 리브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숙박을 요구.
 ‘나홀에게서 낳은’: 종으로 하여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알게 함.
- 22:26-27/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인 열정을 보여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 종의 성공은 아브라함과 가진 관계 덕분.
 * 주님의 호의(인자)와 신실함(성실)은 종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요소.
 *하나님이 자신을 새로운 세대의 어머니에게로 인도한, 신뢰할만 분이심을 기뻐함.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1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쥘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 24:28/ ‘어머니 집’: 이삭의 아내를 찾는 종의 궁극적인 목적에 중요한 여족장의 역할을 고취.
- 24:29-30/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라반은 이 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우물로 달려가’, ‘나아감이라’: *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선물을 보았기 때문에 우물가로 달려감
 * 라반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반영-야곱과의 갈등의 원인.
- 24:31/ ‘들어오소서’: 환대의 이미지. 도시 바깥의 위험을 피하여 도시 안으로, 광장으로, 가정으로 이끌어들이.
- 24:32-33/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의무를 다 수행하기를 원하는 종.
 ‘말하소서’: 종이 주려는 소식을 듣고 싶어함.